

## 再生産的循環過程의 分析

金 瑞 鳳

### 一. 問題提起

全體로서의 經濟規模及 組織은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或은 곳에따라 相異한것이나 消費는 人間의 經濟活動의 唯一한 到達點이며 目的인것은 古今을 不問코 또 場所의인 差異를 超越하여 共通된 點이라 하겠다. 그리고 消費의 充足은 財貨 및 用役의 充足으로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生産이나 流通은 消費에의 過程이며 또한 手段 乃至 方法이라고도 解釋할수 있을 것이다. 이方法과 過程은 社會의 發達과함께 複雜化하고 곳에따라 相異하며 이의 具體的인 表現은 經濟組織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消費와 生産을 連結하는 流通分野를 且置하면 한集團으로서 消費는 生産에 依하여 可能하며 生産亦是 消費를 前提하므로서 可能的 同時에 消費의 크기에 依하여 促進 或은 阻止된다고 말할수있다. 換言하면 生産水準이 低落된 境遇에 消費水準의 低落은 不可避한 것이며 消費水準의 低落은 또한 生産動因에 刺激을 滅殺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故로 한集團으로서 經濟는 生産과 消費의 再生産的 過程으로서 認識될수 있으며 이것을 中心하여 或은 이것을 爲하여 複雜多端한 秩序가 社會的으로 形成되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經濟를 財貨의 生産及 消費에 關한 社會的秩序云々①한것도 이러한 意味에서이며 首肯할수있는 點이기도한다.

이와같이 經濟의 核心은 財貨의 生産과 消費의 再生産的인 秩序이며 이들이 經濟의 實體를 이루고있다. 勿論 이러한 命題는 實物經濟下에서는 至極히 妥當한 것이라 할지언정 實物經濟 안인 貨幣經濟下에서는 生産及 消費를 可能하게하는 것은 貨幣이며 貨幣를 通하여 이들이 營爲되므로

實物側面以外에 貨幣側面の 重要性을 默過할수 없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과 消費의 再生産的인 秩序로서의 經濟는 一方的으로 實物一面에 始終할것이 못됨을 말해둔다. 왜냐하면 從來의見解와같이② 貨幣는 實物을 덮고있는 一種의 Veil에 不過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러한 受動的인 役割만을 擔當할수있는것이 貨幣가 아니라 貨幣의 存在에 依하여 經濟自體가 形成되고 運營되며 또 經濟에 變動을 惹起할수있는 積極的인 存在이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人間의 經濟生活의 窮極的인 모습은 生産과 消費의 返覆 및 連續에 不過한것이나 生産과 消費의 모습이 貨幣의 存在與否에따라 判異하게된다. 왜냐하면 實物經濟的으로는 消費란 財貨의 消費 消耗를 意味하는 것이다. 貨幣經濟下에서는 貨幣所得의 支出을 말하며 구태여 財貨의 消耗與否는 問題될바아니며 生産에 있어서도 生産을 爲한 貨幣(貨幣資本)가 必要한것으로서 알수있다. 따라서「財貨의 生産及消費의 循環過程이 經濟의 中樞라하기보다 現實的으로는 所得 或은 資本의 再生産的 循環過程으로 把握하여야할 것이며」③ 近代經濟理論이 貨幣理論的으로 再編成되고있는 所以이기도 한것이다.

이와같이 窮極的으로는 經濟가 財貨의 再生産的 循環이라고 하더라도 그위에 所得 或은 資本의 再生産的循環은 營爲되며 前者를 規制하는 後者の 位置가 貨幣의 Veil觀을 脫支하게한 動機라하겠다. 그러나 兩者는 相互如何히 重疊되고 交渉하며 如何한 關係下에 있는가를 究明함이 本稿 第一의 目的이며 그에서 發展方向을 表示하는 條件이 提示된다면 그것은 第二次的인 目的이다.

叙上한 바와같은 目的을 爲하여는 現實經濟 그대로 捕捉하여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世界經濟下의 一國으로서 捕捉하여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既述한 貨幣의 運動과 財貨의 運動은 再生産的으로 循環하며 現在 世界經濟의 段階下에서는 一段 國家란 政治的인 領域을 單位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各々이 相互接觸하므로써 再生産的循環은 相異한 樣相을 示顯할것이나 그는 後日을 期約하고 于先 封鎖型을 中心으로 論述한다.

① 中山伊知郎著 經濟學一般理論 一面

② A. C. pigou; The Veil of Money. P. 18.

J. 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S. 65—66  
(中山, 東畑 譯 103面)

③ 新庄博著 金融論 九面

## 二. 經濟循環의 實體

經濟循環의 實體를 如何히 把握하느냐의 問題는 經濟思想에 크다란 差異를 가져왔다. 重商主義時代의 經濟思想은 經濟循環의 實體를 貨幣 곧 “金”으로 看做하였기 때문에 國際收支의 輸出超過를 爲한 國家의 經濟干涉이 恣行되었고 重農主義者들은 「自然 곧 土地」를 經濟의 實體로 捕捉하고 그 生産物을 循環實體로 看做하여 重農을 主張한것도 이미 다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건데 前者가 皮相의인 表面現象에만 陶醉되였는가하면 後者 또한 偏波的이며 偏狹한 見解라는 批判을 免치 못하고있다. 이에對하여 Adam Smith가 「모든 國民의 年々勞動은 그國民이 年々消費할 一切의 生活必須品及 便宜品을 本源的으로 供給하는 基礎이며 그것은 恒常 勞動의 直接 生産物 或은 그生産物과 交換으로 他國으로부터 購入하는 生産物으로서 이루어 진다」①고하여 經濟循環의 實體를 “年生産物”에서 求하였다는것은 實로 顯著히 經濟觀의 發展이라고 할것이다. 다시말하면 重農主義的인 自然 및 土地生産物에 局限하지않고 勞動의 生産物으로서 廣範圍하게 把握하고 있어므로 重農主義者에 對한 偏狹한 見解라는 批判은 免할수 있으며 또한 人間의 經濟活動의 本來의 形態를把握하였다는 點은 重商主義的인 皮相의見解에서도 脫却한 것이다.

그러나 「年々消費할 一切의 生活必需品 便宜品」으로 限정한것은 經濟循環의 實體를 把握하는데는 亦是 偏破的인 見解라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年々消費할 一切의 生活必須品及 便宜品」이란 所謂 消費財를 意味하며 設令 人間本來의 經濟活動의 目的이 財貨 및 用役의 消費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生産하기 爲하여는 그를 爲한 消費가 附隨하는 것이며 人間의 財貨 消費는 決코 本源的消費 곧 生活必需品 便宜品만을 消

費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그外에도 生産的인 消費를 默過할수없다. 이것이 人間과 動物을 區別하게하는 分岐點이기도하다. 再言컨데 人間の 社會的經濟生活는 生活資料 곧 Smith가 말하는 必需品 便宜品の 連續的인 消費에 依하여 維持 展開되며 生活資料의 連續的인 消費는 連續的인 生産을 前提한다. 곧 再生産이다. ② 이 再生産을 爲한 資料가 期必코 要請되며 이것을 經濟循環의 實體에서 除外 或은 對象外로 하는것은 問題의 一片만을 取扱하는 偏見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보건데 K. Marx의 再生産表式③은 Smith의 短點에 不滿하여 描寫한 經濟循環의 表式이며 經濟循環의 實體를 表示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經濟循環의 實體를 生産物에서 求하여 消費財生産部門의 生産物과 生産財生産部門의 生産物과의 合計에서 求하고있다. 勿論 이것은 從來의 見解에 對하여서는 一步 前進的인것이라고는 할수있으나 이에 終結하여도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前節에서 既述한 바와같이 現今 經濟循環은 實物運動과 貨環및資本의 運動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Marx가 把握한 經濟循環의 實體는 消費財生産 및 生産財生産物의 總計로서 實物 一面을 觀測한데 不過하다 하겠다. 勿論 再生産表式에서 取扱된 單位는 價値를 表示하며 이것을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貨幣의 運動이 全然存在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날아난 貨幣流通이란 始終 從屬的이며 獨立的인 作用을 하지못하는 貨幣인 것이다. 再生産表式的 作成 目的이 貨幣經濟 社會에서 經濟의 循環 그것을 있는 그대로 描寫하는데 있지않았으며 全體로서의 資本家の生産이 反覆 繼續되기 爲하여는 資本家の 生産物의 各部分은 市場에 있어서 價値 및 物的形態에 있어서 如何한 關係를 持續하여야 할것인가를 究明하는데 있으므로④ 實物을 價値에 歸結시켜 貨幣와 連結시킨 탓인가도 한다.

아모던 經濟의 窮極의 모습이 實物經濟에 있다고 하드라도 貨幣는 一種의 Veil이 아닌 以上 貨幣及資本의 運動은 單純히 從屬的인것이 아니며 獨立的인 作用을 갖는것이며 따라서 經濟循環의 實體는 實物 및 貨幣의 兩側面에서 求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K. E. Boulding의 「浴

桶原理」(Bathtub-theorem)⑤亦是同一한 批判을 免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J. M. Keynes의 「一般理論」은 이方面의 功績 또한 顯著한 것이라 하겠다. 卽 그는 經濟循環의 實體를 兩側에서 捕捉한다. 實物經濟 側面에서 「產出高」(Output)를 把握하고 他面 그에 對應하는 有効需要의 實體로서 「所得」의 分析이 中心으로서 登場하며 그所得은 무엇을 契機로 創出되며 어떻게 消費와 貯蓄으로 分岐하며 그配分 如何에 따라 國民所得에는 如何한 擴張이 惹起할것인가의 理法이 究明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再生產表式은 貨幣를 背後에 돌리고 實物經濟의 循環을 巨視的으로 分析한 데 對하여 Keynes는 實物的인 「產出高」의 存在를 想定하며도 表面을 構成하는것은 오히려 所得의 動向을 問題로 하고있다. 一見컨데 「貨幣面 및 資金面의 分析이란 印象을 갖게 한다」⑥ 그러나 實物經濟의 存在하지 않는 貨幣經濟란 있을수 없으며 貨幣 및 資金의 循環亦是 無意味한 것이다.

그러면 Keynes에 있어서 實物經濟와 貨幣經濟의 交涉을 如何히 捕捉한 것인가는 循環圖를 (四節) 通하여 보기로 한다.

- ①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Introduction.
- ② 石田興平著. 再生產と貨幣經濟 15面
- ③ 맑스·著. 資本論 第2卷 第3篇. 第20・31章  
高島素之 譯
- ④ 前掲書. 311面. 改造社經濟學全集 第14卷 250面
- ⑤ K. E. Boulding ; Economic analysis part2. P288.
- ⑥ 高橋・鹽野谷. 編著. 一般理論講義 第2卷 44面

### 三. 經 濟 循 環

上述한바와같이 經濟循環의 實體는 實物 및 貨幣의 兩側面에서 求하여야하며 實物에만 偏倚할수도 없거니와 貨幣循環에만 着眼하는것도 無用한 것이다. 여기에서 再生產表式의 循環圖를 抽出하므로서 그의 一方的인 偏見을 알수 있을 것이다.

經濟循環의 描寫를 試圖한 最初의 사람은 Physiocrats의 F. Quesnay①임은 누구나 다아는 事實이다. 이에 깊이 影響을 받은 Marx는 再生產表式을 作成하여 資本主義經濟下에서 資本蓄積 或은 資本의 擴大再生產이

營爲되기 爲한 均衡條件을 提示하고 結局「資本主義的發展은 終局에 破滅에 陷入한다」②라는 것을 表示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現實 貨幣經濟의 貨幣 및 資本의 形成 및 그移動分析은 直接 目的으로 한것은 아니다. 그歸結은 如何튼 Marx의 再生産表式에서 資本의 運動을 契機하여 派生하는 所得의 形成 貯蓄 投資 消費等々の 貨幣 및 資金 곧 貨幣側面의 循環을 抽出하는것은 困難한것도 아니며 「그 對象과 範圍에 있어서는 Keynes의 그것과 同一한것으로 看做할수 있을것이다.」③

그러면 再生産表式에서 再生産이 擴大的으로 이루어지는 遇遇의 ④ 經濟循環圖와 均衡의 必要々件을 究明키로 한다. 먼저 再生産表式에서 想定하는 經濟世界 或은 前提를 要約抽出하면⑤

(i) 社會는 勞働者及 資本家=企業家로서 構成되며 (ii) 社會生産物은 生産財와 消費財로 二大別되어 이들 兩者로서 이루어 지며 (iii) 勞働者는 所得의 全部를 消費支出한다. (iv) 生産手段 生産部門의 資本蓄積率은 一定하며 (v) 兩大生産部門의 剩餘價値率은 同一하고 또 不變하다. (vi) 生産物分配過程에서는 價値에서 離脫은 있을수 없으며 (vii) 封鎖經濟社會를 前提하며 (viii) 勞賃은 先拂되고 (iv) 在庫品假定은 없으며 (x) 技術變化의 捨象 따라서 資本의 有機的인 構成의 變化가 捨象된다. (xi) 資本廻轉은 生産財生産部門이나 消費財生産部門에서 同一하다. 等々을 들 수 있다.

이에서 擴大되는 遇遇의 再生産表式을 符號로서 表示하면 各生産部門物은 C 不變資本의 價値損耗分 V 可變資本의 價値 및 剩餘價値 M 와의 合計만큼의 價値다.

$$I. C_1 + V_1 + M_1 = W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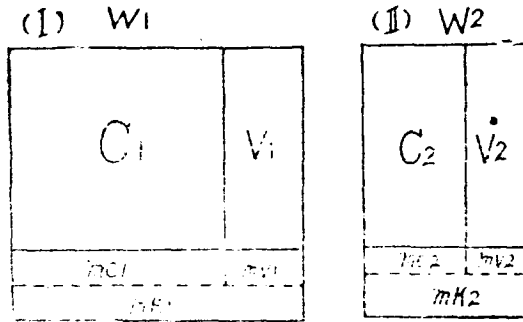
$$II. C_2 + V_2 + M_2 = W_2$$

그러나 各部門의 剩餘價値  $M_1$ 과  $M_2$ 는 消費 및 投資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社會生産物은 分配된다.  $(mc+ma)$ 는 資本의 擴大 곧 投資를 意味하며  $mk$ 는 剩餘價値中에서 消費分을 意味한다.

$$I. C_1 + V_1 + mc_1 + mv_1 + mk_1 = W_1$$

$$\text{II. } C_2 + V_2 + mc_2 + mv_2 + mk_2 = W_2$$

여기에서 生産手段의 需給均衡 및 消費財의 需給均衡 條件을 抽出하면 다음과 같다.



— 第 1 圖 —

生産手段의 需給均衡條件 :

$$W_1 = C_1 + mc_1 + C_2 + mc_2 \dots \dots (1)$$

消費財 需給均衡條件 :

$$W_2 = V_1 + mv_1 + mk_1 + V_2 + mv_2 + mk_2 \dots \dots (2)$$

部門間 需給均衡條件 :

$$V_1 + mv_1 + mk_1 = C_2 + mc_2 \dots \do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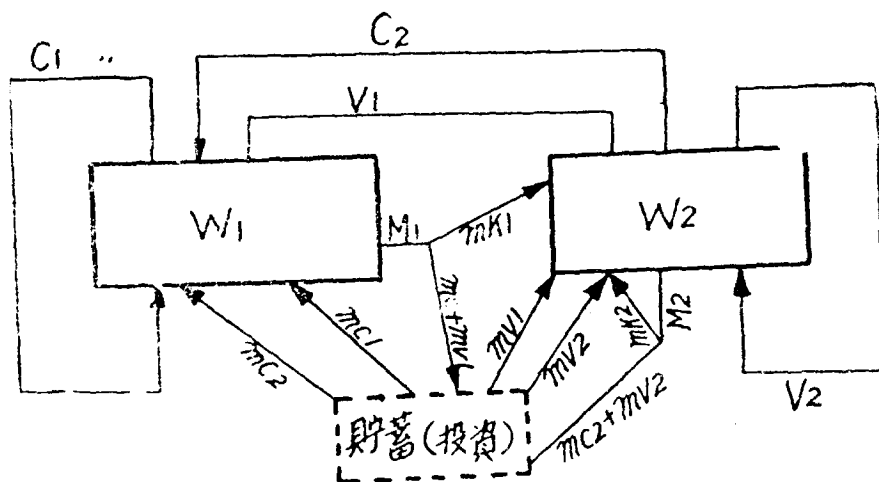
即 兩部門의 生産物이 何等の 滯

荷없이 需要되고 供給되기 爲하여는 (3)式이 充足되어야 하며 第一圖에서 斜線部分이 價値에 있어서 部門間에 錯誤없이 一致하므로서 비로소 生産手段, 生産部門과 消費財 生産部門은 均衡的으로 擴大를 持來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을 爲하여 交換過程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第一部門의 生産物  $W_1$ 은 그生産에 있어서 損耗 消費된 不變資本 (固定資本의 減價部分 및 價値面에 價値變動을 惹起하지 않는 流通不變資本)의 價値 및 素材의 補頭을 意味하는  $C_1$ 과 勞賃으로서 先拂한  $V_1$ 을 充當하고 然後에 剩餘價値率 100%에 該當하는 剩餘價値  $M_1$ 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企業家 곧 資本家에 歸屬하는 剩餘價値는 그들의 消費生活에만 充用되지 않고 資本蓄積( $mc_1 + mv_1$ )을 하므로서 비로소 資本의 擴大는 期할 수있으며 追加不變資本( $mc_1$ )과 追加勞動力에 對한 勞賃( $mv_1$ )의 比는 亦是資本의 有機的인 構成에 依據할것이므로  $C_1 : V_1$ 과 同比率이어야 할것은 勿論이다. 이와 同一하게 第二部門 곧 消費財生産部門의 生産物 即 各樣各色的 消費財 一切  $W_2$ 는 亦是  $W_2$ 의 生産에 있어서 價値 移轉한 不變資本部分  $C_2$ 와 勞動力 購買에 先拂한 不變資本  $V_2$ 를 充當하고 剩餘價値가 있을것이며 그 剩餘價値 亦是 企業家の 消費에만 充用될수는 없으며 均衡條件을 表示하는 諸式에 따라 追加資本化하고 殘部는 消費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W_1$  一切는 生産手段 곧 生産財이며  $W_2$ 는 全部 消費財라는데 있다. 故로 第一部門의 可變資本 및 追加可變資本 그리고 企業家들의 消費生活에 充用되는 剩餘價値의 一部分은—— $V_1 + mv_1 + mk_1$ ——部門內的 交換으로서는 目的을 이룰수 없다. 따라서 同等價値의 消費財와 交換되어야 할것이며 他面 第二部門의 不變資本 및 追加 不變資本—— $C_2 + mc_2$ ——은 素材에 있어서 消費財이므로 第一部門의 生産物과 交換되어야 한다. 兩部門間的 交換에 있어서 需給의 均衡을 爲하여 必要々件 곧 (3)式이 滿足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流通은 貨幣를 媒介하여 이루어 진다.

그러면 이의 交換을 爲한 貨幣循環을 考察한다. 前述한 前提條件(vi)에 따라 貨幣單位名은 무엇이라고 부쳐도 無做하다. 곧 Pound (£)란 單位名을 冠한것은……貨幣形態로 表示한 價値⑥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圖示하면 第二圖⑦와 같다.



— 第2圖 —

곧  $C_1$ £는 第一部門內에서 企業家들이 再生産을 爲하여 不變資本 補頭을 意味하며  $V_2$ £는 第二部門內的 勞動者들이 企業家로 부터 受取한 勞賃을 前述한 前提條件(iii)에 따라 何等의 貯蓄없이 全部 消費支出하여 消費財生産部門의 企業家들로부터 消費財 購入을 意味하며  $V_1$ £亦是 第一部



門의 勞働者들의 所得全部가 消費支出됨을 表示한다. 그리고  $C_2\text{£}$ 는 再生産을 爲하여 第二部門內의 企業家들이 不變資本 補額分을 生産手段生産部門의 企業家들로부터 購入하는것을 意味 한다. 끝으로  $mk_1\text{£}$  및  $mk_2\text{£}$ 는 第一部門 및 二部門의 企業家들의 消費支出를 意味하며  $mu_1$  및  $mu_2$ 는 各部門의 擴大再生産을 爲하여 支拂된 勞賃의 行方を 指示하며  $mc_1 \cdot mc_2$ 는 各部門의 企業家들이 擴大再生産을 爲하여 不變資本의 追加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mc_1 + mv_1)$  및  $(mc_2 + mv_2)$ 는 兩部門의 企業家들에 依하여 이루어진 貯蓄이며 곧 投資를 말한다. 이와같이 貨幣는 流通循環하여 各部門의 生産物을 完全히 需要하고 生産은 進展하는 것이다.

貨幣循環의 機能的인 性格 區別을 爲하여 이를 要約하려고 한다. 먼저  $P$ 로서 勞働者를 表示하고  $K$ 로서 資本家 곧 企業家를 그리고 各部門別을 表示하는 符號로서  $I, II$ 를 擇하면 貨幣 및 資金의 循環은 다음과 같다.

$C_1\text{£} \cdots IK \rightarrow IK \cdots \cdots$  不變資本 減價補額

$C_2\text{£} \cdots IIK \rightarrow IK \cdots \cdots$  不變資本 減價補額

$V_1\text{£} \cdots IK \rightarrow IP \rightarrow IIK \cdots$  勞働者의 消費支出

$V_2\text{£} \cdots IIK \rightarrow IIP \rightarrow IIK \cdots$  勞働者의 消費支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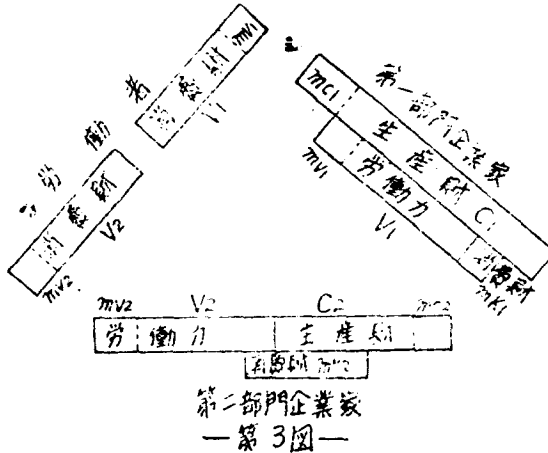
$M_1 \begin{cases} mk_1\text{£} \cdots IK \rightarrow IIK \cdots \cdots \text{企業家의 消費支出} \\ mc_1\text{£} \cdots IK \rightarrow IK \cdots \cdots \text{勞動手段 및 對象에 對한 投資} \\ mv_1 \cdots IK \rightarrow IP \rightarrow IIK \cdots \cdots \text{勞動力에 對한 投資} \end{cases}$

$M_2 \begin{cases} mk_2\text{£} \cdots IIK \rightarrow IIK \cdots \cdots \text{企業家의 消費支出} \\ mc_2\text{£} \cdots IIK \rightarrow IK \cdots \cdots \text{勞動手段 및 對象에 對한 投資} \\ mv_2\text{£} \cdots IIK \rightarrow IIP \rightarrow IIK \cdots \cdots \text{勞動力에 對한 投資} \end{cases}$

여기에서 總貨幣 및 資金은 三方面으로 機能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企業家間의 去來 곧 使用者費用과 消費支出 및 貯蓄 (곧 投資)이 그것이다. 使用者費用은 國民所得과 直接的인 關聯을 갖지 않는 貨幣資本의 流通이며 消費와 貯蓄은 國民所得의 支出方向을 意味한다. 이러한 點에서 再生産表式의 對象과 方法은 Keynes의 그것과 類似한 點이기도 하다. 아모던 叙上한바와 같은 貨幣 및 資金의 流通에 依하여 實物經濟側面을 第三圖⑧

와 같이 分配케하여 年生産物은 過不足없이 全部 需要되게 한다.

Marx의 再生産表式을 通하여 如斯한 實物經濟와 貨幣經濟의 相互交渉



相을 抽出할수 있다. 勿論 이  
에 對하여 보답 많은 考究가 必  
要하며 그의 未備點을 指適  
批判하여야 할것이나 그것은  
後述(五節)키로하고 次節에서  
Keynes의 「一般理論」을 中心  
으로하여 貨幣側面과 實物側面  
의 交渉面 循環相을 찾기로 한  
다.

- ① F. Quesnay : Tableau Economique 1758.
- ② J. A. Schumpeter : J. M. Keynes 1883—1946  
日本銀行調査局譯 Harris: new Economics 第1卷 143面收錄
- ③ 高橋・鹽野谷編著 一般理論講義 第2卷 46面  
都留重人著 國民所得と再生産 218—225面參照
- ④ 高島素之譯 資本論 第2卷 第3篇 第21章
- ⑤ 都留重人著 前掲書 251面  
越村信三郎著 再生産論 3面
- ⑥ 高島素之譯 前掲書 358
- ⑦ 面中山伊知郎編 經濟原論 107面參照
- ⑧ 都留重人著 前掲書 316面

#### 四. Keynes의 境遇

Keynes는 그의 「一般理論」의 序文에서 「……그리고 本冊子는 全體로서  
의 產出高 및 雇傭의 規模變化를 規定하는 諸 힘의 研究로 主로 하는데 가  
지 發展하고 있으며 貨幣는 本質的이며 또 獨特한 方法으로서 經濟機構內  
에 介入하고 있음을 表示하고 있으나 貨幣에 關한 技術的인 詳細는 背後  
에 돌리고 있다」① 여기에서 적어도 經濟의 均環을 實物로서 「產出高」「雇  
傭等과 함께 特獨한 貨幣의 運動을 記述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斟酌할수

있다. 即 前節에서 본바와같이 Marx의 再生産表式은 貨幣의 獨自的인 作理을 捨象하고 價値를 媒介機能②으로하는 巨視的인 經濟循環의 分析이 있으나 Keynes의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J. R. Hicks의 말을 빌리면 貨幣的인 「解剖」③를 目標로하고 있으며 背後에 產出高의 存在를 想定함에도 表面的으로는 均衡形成을 “所得” “消費支出” “貯蓄” “貨幣量”等々이 支配하여 恰似實物經濟를 捨象한것 같은 印象을 갖게 한다. 그러나 既述한바와 같이 實物經濟가 存在하지 않는곳에 貨幣經濟는 想定할수 없는 것이다.

Keynes에 있어서 實物經濟와 貨幣經濟의 相互交涉을 明示한것이 主로 一般理論 第二編의 內容이며 特히 全經濟의 規模를 表示하는 것으로서 「產出高」의 分析에서 貨幣循環의 實體 乃至 出發點을 形成하는 所得을 誘導하고 理論的인 關脫을 明白히 하고있다.

勿論 經濟規模를 代表하는 實物側面의 「產出高」는 그의 前著「貨幣論」④에서 取扱한바 있으나 그 範圍와 視野는 「一般理論」에서 더욱 廣範하게 取扱되고 있다. ⑤

그러나 一定한 經濟水準이 如何히 하여 變動하고 上昇하는가를 終局의 問題로하고⑥ 貨幣經濟의 機構의 分析을 課題로하는 「一般理論」에서는 產出高의 變化에 直接的인 影響을 갖는 「新投資」⑦가 主要 對象으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新投資의 分析 出發點이되는 「所得」과 所得에 直接關聯되는 「消費」「貯蓄」「投資」等の 크기와 變化가 經濟規模를 代表하고 그 變化를 左右하는 均衡의 中心이되고 있다. ⑧ 勿論 이들이 各々 媒介變數는 아니다. 「消費性向」資本의 「限界効率」및 「利子率」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면 實物側面의 產出高와 貨幣側面의 所得과의 關係를 考察한다. 實物經濟의 實體인 產出高의 分析은 두가지 觀點에서 把握하고 있으며 其一是 產出物의 流通 乃至 使用方途에서 이며 其二是 費用의 分析에서다. 前者는 生産物의 消費되는 狀況 곧 再生産하기 爲하여 資本損耗를 補頤 或은 新投資와 消費를 云謂한 것이며 物的形態에 있어서 資本財와 消費財의 區別을 暗默的으로 前提하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 自體가 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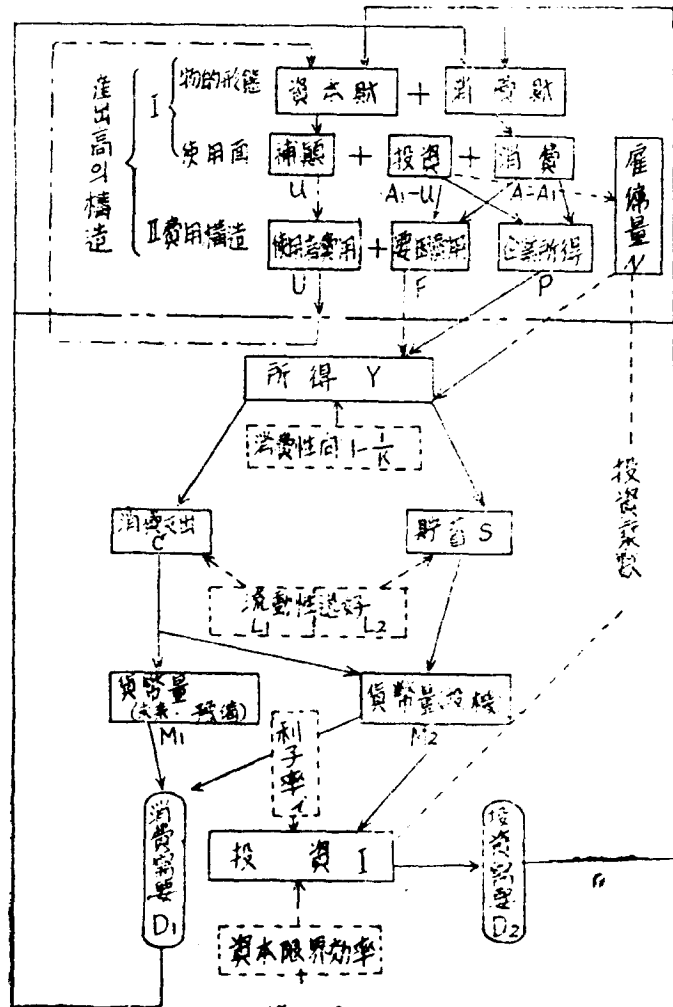
自的으로循環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實物經濟의 循環法則에 依據할수는 없으며 所得의 支出 乃至 그配分에 依하여 循環한다. 所得의 實物에 對한 支出配分은 資金과 貨幣(單純히 購買力)의 支出 方向을 意味한다. 이는 所得의 支出面이나 所得의 形成은 產出高의 費用側面에서 求하고 있다.

產出高를 費用의 法則에서 考察하면 全產出高의 價值(賣却價格A)는 生産에 直接 使用된設備의 所要된 物的費用 使用者費用(U)과 生産要因의 用役에 對하여 支拂된 費用「要因費用」(F)으로 兩分할수있으며  $F+U$ 를 產出高A의 主要費用이라고 한다. F는 所得을 形成하는 것이나 U는 企業家間의 去來를 意味한다. 이 以外도 產出高의 價值와 主要費用과의 差額  $A-(U+F)=P$ 이라는 企業家の 所得이 存在한다. 따라서 產出高價值A와 使用者費用U와의 差額は 貨幣側面에서 所得(Y)의 形成根據인 것이다. ④

以上은 產出高의 價值를 費用의 觀點에서 分析考察한 것이다 產出高가 消費되는 觀點에서보면 產出高A는 그期間中 企業間에 賣買되는分( $A_1$ )과 消費界에 投入되는 ( $A-A_1$ )것으로 區分되는 것이다. 使用者費用U는 同經濟期間內의 物的費用을 表示하므로 ( $A-U$ )가 同期間中の 消費( $A-A_1$ )를 超過하는分 ( $A_1-U$ )는 結局 同期間의 資本增加額 곧 投資를 表示한다. 따라서 產出高의 物的使用構成은 結局 消費( $A-A_1$ )과 投資( $A_1-U$ ) 및 使用者費用U의 補額으로 區分되는 셈이다. ⑤ 그리고 物的使用의 構成中에서 投資는 所得과 消費의 差額인 貯蓄과 均等한 것이다. ⑥

以上으로서 大略 Keynes 모델의 實物例面과 貨幣例面の 交渉骨骼을 추진셈이나 骨骼間에는 變動을 媒介하는 媒介變數가 있으며 이를 略述하여 相互對應關係를 그리기로한다. 卽 產出高A에 依하여 循環의 出發點을 形成하는 貨幣循環은 두가지 性格을 抽出할수있다. 곧 資金으로서 貨幣와 購買手段으로서 貨幣다. 그러나 后者에는 全然 資金의 部分이 內包되고있지 않는바 아니다. 왜냐하면 所得化한 貨幣循環은 消費와 貯蓄으로 分岐하여 貯蓄의 一部分은 終局에 있어서 資金의 循環으로 合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所得과 貯蓄과 消費支出과의 分岐를 惹起하게하는 媒介機構는 두가지 例面에서 捕捉할수있으며 그一是「消費性向」이며 그二是「利子率」決

決定의 要因이 되는 「流動性選好」다. 流動性選好는 非單 貯蓄의 形態를 相異하게 할뿐만 아니라 利率을 刺激하고 그利率과 「資本의 限界効率」과의 對比關係에서 投資誘引을 形成하고 投資를 左右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할수있는것은 實物經濟側面의 全產出高에 對應하는 貨幣循環側面은 大略 세가지로 分岐하며 그一是 企業家間の 去來를 構成하는 使用者費用의 流通이며 그二是 消費財와 對應하는 消費支出과 그三是 資本財 및 消費財에 對應하는 投資部分이다. 故로 產出高의 所得에 依한 有効需要는 貨幣側面의 消費支出 및 投資에 呼應하는 것이며 곧  $D = D_1 + D_2$  ⑩인 것이다. 第四圖는 實物經濟 및 貨幣經濟의 對應循環關係를 表示한 것이며



— 第四圖 —

節을 세로히하여 再生産表式的 再生産的循環과 Keynes의 境遇를 比較批  
判하여論의 다음을 準備한다.

- ①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Preface.
- ② keynes 「一般理論」에서 찾을수있는 印象的인 것은 價値論의 排除다. 곧 그 以前에 있어서는 經濟學의 基礎 乃至 出發點은 價値論이었으며 그것을 基礎하여 價格論 分配論等으로 敘述되었다. 價値論이 從來 經濟學에 있어서 그러한 核心的인 地位를 차지할수 있었는데 對하여는 두가지의 意味를 捕捉할수있다. 그一是 古典經濟學에서 「機能」으로서 價値이며 그二是 Marx 經濟學에서 「實體」로서의 價値가 곧 그것이다. 그러나 Keynes에 있어서는 巨視的으로 經濟의 規模 乃至 構造를 把握하는데 끝치지 않고 그러한 實體量을 媒介結合하고 或은 그量을 決定하는 「媒介機能」(媒介)變數으로서 「利子率」 「資本의 限界効率」 「消費性向」等等을 機能的인 것으로 하여 古典派 經濟學의 機能的인 價値에 代하고 있다 하겠다.
- ③ J. R. Hicks : The Social Frame Work (李海東・李基俊譯 283面)
- ④ J. M. Keynes; A Treatise on Money 2Vols. 1930
- ⑤ 「貨幣論」에서는 「社會의 所得」(國民所得)의 成立 基礎인 同時에 「社會의 所得」에 依하여 購買되는 實物對象은 「純生産」(消費財 및 新投資財)만이었으나 「一般理論」에서는 廣汎한 經濟의 總循環을 構成하는것으로서 一定 期間內에 生産되고 企業家間 및 消費者에 賣却되는 總索出高가 對象되고 있다.
- ⑥ J. M. Keynes ; General theory. preface.
- ⑦ 新設資財의 流通은 媒介하는 新投資의 資金
- ⑧ 經濟規模 및 經濟水準의 變化를 取扱함에 있어서는 「所得」 「消費」 「投資」 등의 어떤 水準 乃至 크기로부터 增加分 (곧  $\Delta$ 의 符號) 相互間의 變化法則 關係로서 取扱한다.
- ⑨ J. M. Keynes. ; ibid., chap. 6.
- ⑩  $A = (A - A_1) + (A_1 - U) + U$   
 $\therefore A_1 = (A - U) + U$   
 企業家間에 去來되는  $A_1$ 은 結局補顔과 投資의 總和를 意味한다.
- ⑪ 投資 = 所得 - 消費 = 貯蓄  $\therefore$  投資 = 貯蓄
- ⑫ J. M. Keynes ; ibid P. 29.
- ⑬ 第圖는 高橋泰藏著 「貨幣經濟的 循環의 理論」 24面 第1圖 依據作成

## 五. 問題解決을 爲한 問題提起

以上 Marx와 Keynes의 經濟循環圖을 概述하였다. 兩者의 理論모형을 各々 批判하고 問題의 解決을 爲한 問題를 提起한다.

再生産表式的 經濟循環圖은 前述한 前提위에서 經濟循環의 規範을 表示하는 點에서 類例없는 功績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循環圖의 前提條件은 너무나 非現實的이며 單純無上하다 하겠다. 이를 批判하면

첫째 社會는 勞働者及資本家로서 構成되고 있거나 獨立生産者나 商人이나 金融業者 地主等々の 存在가 捨象되고 있으며① 그에 因한 所得亦是 漏落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 勞働者層의 所得은 全部 消費支出되는것으로 再生産表式的 循環圖은 明示하고있다. 貧困階級인 勞働者에 對한 同情에서라고 自慰默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勞働者의 所得水準이 破局點(Critical point)에 있다고 假想하고 있거나 理論의 簡單을 爲한 假想에 不過할것이며 破局點을 所得水準이 超過하는 境遇에는 八個의 貯蓄動機②에서 貯蓄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資本家間의 所得 및 去來와 結付하여 貨幣經濟에 一連의 重要な 側面을 構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資本의 有機的인 構成의 變化 및 技術의 變化等이 捨象되고 있는點은 短期考察이라는 것으로 許容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資本廻轉이 兩部門에서 同一하게 이루어 지도록 表式化하고 있는點은 너무나 非現實的이며 理論展開를 爲한 歪曲된 前提의 設定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前提의 不當性乃至 非現實性을 除外하고서도 貨幣는 앞서 指摘한바와 같이 實物交換의 媒介機能을 하는데 不過하였다. 따라서 貨幣의 Veil觀에 立却하여 叙述한것이라는것도 容易하게 斟酌할수 있거니와 循環에 介入하는 그量에 있어서도 容納 못할 欠陷이있다. 卽 再生産表式에 登場한 貨幣資本中 不變資本은  $C_1 + C_2$ 이다. 이를 考察한다. 勿論 生産部面에서 貨幣資本의 運動形式은  $G - W < \frac{Pm}{A} \dots P \dots W' - G'$ 이다. 여기에서  $Pm$ 는 勞動手段 및 勞動對象이며  $A$ 는 勞働을 말한다. 이에비추어 再生産表

式에 나타난 貨幣資本 亦是  $Pm$  및  $A$ 로 各々 區分되고 있거나 그에 나타난 不變資本과  $Pm$ 와는 量的으로 相異하게 된다. 왜냐하면 再生産表式에서 不變資本이란 勞動手段 및 勞動對象의 價値體化部分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資本循環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G-W \left\{ \begin{array}{l} Pm \left\{ \begin{array}{l} Pm_1 \dots\dots\dots \\ Pm_2 \dots\dots\dots \end{array} \right\} \\ A \dots\dots\dots \end{array} \right\} W' \longrightarrow G' \quad \begin{array}{l} Pm_1 \dots\dots\dots \text{勞動手段} \\ Pm_2 \dots\dots\dots \text{勞動對象} \end{array}$$

그러면  $Pm_1$ 은 長久한 壽命을 保有하기 때문에 資本의 廻轉에 따라 全部 代替補頭된다고 看做할수 없는 것이다. 곧 當該社會의 勞動手段의 壽命을 平均  $N$ 年이라고 한다면 資本一廻轉  $\sim 1$ 年 $\sim$ 에 따르는 損耗部分은  $Pm \times \frac{1}{N}$ 이며 이價値部分만큼  $N$ 年間 積立되어 固定資本의 更新을 擔當하는 것이다.

$$G-W \left\{ \begin{array}{l} Pm \left\{ \begin{array}{l} Pm_1 \left\{ \begin{array}{l} Pm_1(1 - \frac{1}{N}) \\ Pm_1 \times \frac{1}{N} \dots\dots\dots \end{array} \right\} \\ Pm_2 \dots\dots\dots \end{array} \right\} \\ A \dots\dots\dots \end{array} \right\} W' \longrightarrow G'$$

即 勿論 再生産表式の 不變資本이란 上式の  $Pm_1 \times \frac{1}{N} + Pm_2$ 에 該當하는 것이나  $Pm_1 \times \frac{1}{N}$ 만큼이 每年 投下되어 補頭하는것으로 看做한 點은 容納될수 없는 點인가한다.

再生産表式은 現實貨幣經濟의 再生産的인 循環의 機構分析을 企圖한것이 아니며 「……勞賃과 剩餘로 區分된 所得配分은 兩産業部門間에 均衡을 欠乏하게 하는 慢性的 傾向이 存在한다」③는것을 示唆하려는 것이었어나 目的을 前提하고 推理한데서오는 無理한 假定이 設定되었는 感이 없지않다.

그러면 Keynes의 境遇를 본다. 貨幣經濟의 理論이 貨幣的流通만을 取扱하는것도 無意味한것이 겠거니와 實物經濟와 貨幣의 循環을 有機的으로 連結시킬것이 要請된다. 이를 試圖한것이 Keynes의 「一般理論」이라고 할 수있으며 經濟學史上 革期的인것임은 周知하는바다. Keynes는 이에 對하여 第三圖에서 보는바와같이 有効需要는 消費需要와 投資需要의 和에 依하여 決定되며 前者를 左右하는 「消費性向」과 後者の 決定要因인 「資本의



限界効率」「利子率」의 三者가 媒介變數의 機能을 擔當하여 實物經濟의 產出高 및 雇傭量과 結付하고있다. 그의 理論의 概要를 說明하는 一節을 引用하면 「雇傭이 增加하면 實質所得額은 增加한다. 그러나 社會사람들의 心理는 實質所得總額이 增加하는 境遇 總消費額을 增加하지만 所得과 同等한 比率로 增加하지않는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一定한 雇傭量이 適切한 것이기 爲하여는 雇傭이 一定한 水準에 있을때 全生産高中에서 社會가 消費하려는 量을 超過하는 部分을 吸收할수있는 充分한 投資量이 있어야한다. (傍點 筆者) 왜냐하면 萬若 投資量이 없다면 企業家들의 受取額은 그들을 誘引하여 一定量의 雇傭을 提供하는데 必要한 貨幣額보다 少額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社會의 消費性向을 所定の것으로 看做하면 雇傭의 均衡水準은 經常投資量에 依存한다. 그리고 經常投資量은 投資誘引에 依存하며 이것은 資本의 限界効率表와 利子率間의 關係에 依存할것이다」④고

이와같이 Keynes의 循環圖가 貨幣 및 實物의 兩側面의 重疊關係를 如實히 表現하고 貨幣의 Veil觀에서 脫却하여 循環圖를 描寫한 點은 크다란 功績이라하겠으나 여기에도 再生産의 循環過程에 無視 못할 問題點이 있다. 即 產出高A에서 補頭分을 除外한( $A-A_1$ )는 物的形態에 있어서 資本財 및 消費財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兩財貨의 構成比率 如何에 따라 消費 및 投資는 規制當하지 않을수 없다. 換言하면 產出高中 社會의 消費하려는 量을 超過한分은 經常投資에 依하여 吸收되어야 한다고하나 이것은 物的 形態에 있어서 相互間 充分히 代替性을 갖는 境遇에 限하여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⑤ 勿論 Keynes理論의 社會의 背景이 慢性的失業이 存在하는 不況局面이 없음으로 需要만 있으면 供給은 容易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거나 再生産過程理論 곧 產業構造理論을 度外視한것은 너무나 一方的이라 할것이며 假令 需要가 豊富하다고 할지언정 供給 곧 再生産過程에 錯誤가 있다면 調和的인 循環은 期待할수 없는 것이다. ⑥ 따라서 再生産過程의 循環分析은 產出高의 供給 및 需要 兩側面을 貨幣資金의 循環에 依하여 捕捉把握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次節에서 試論코져 한다.

- ① 越村信三郎著 再生産論 3面
- ② J. M. Keynes. ; General theory P. 108.
- ③ J. Robinson ; Marx Economics (戶田・赤谷譯 68面)
- ④ J. M. Keynes ; ibid., P. 27.
- ⑤ 都留重人教授 亦是 이에 言及하여 「社會總資本의 立場에서는……再生産을 爲하여 素材補顔의 問題가 惹起하며 그에서 立體的인 價値補顔과 素材補顔과의 相互規制關係가 成立한다. 그러나 Keynes는 이立體的關係를 平面的關係로 看做하여 所得分配面의 分析에 拘限하므로 資本主義社會構造의 特徵인 立體性을 把握할수 없었다」고 — 國民所得과 再生産 237面
- ⑥ 中山伊知郎編 經濟原論 123面

## 六. 再生産의 循環條件

一定한 經濟社會에 있어서 한經濟期間의 產出高A는 資本財와 消費財로 區分될수있을것이며 이들의 終局的인 利用方途는 資本減價의 補顔・投資 및 消費等으로 各々 充當될것은 再言을 要치않는다. 그리고 產出高A의 費用側面을 Keynes에 따라서 보면  $U+F+P$ 임은 前述한바와 같다. 그러면  $E+P$  곧 所得은 貨幣 및 資金의 金融的인 流通을 經由하여 結局은 投資或은 消費로 具現되어 實物側面과 連結하게 된다. 여기에서 假令 投資없는 社會를 假想한다면 總產出高A에서 補顔을 除外한 殘部는 모두 物的形態에 있어서 消費財이어야 할것이며 國民所得 亦是 何等の 貯蓄없이 모두 消費支出되어야 한다. 如斯한 社會는 永久히 持續維持될수 없는 單純再生産이다. 곧 所得은 貯蓄되어 投資됨으로서 資本設備의 增加를 持來하고 經濟는 發展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貯蓄 및 投資를 度外視할수 없으며 問題는 더욱 複雜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究明코저하는것이 本稿의 主眼點이기도하다. 첫째 產出高A의 補顔分을 分析한다. 社會의 生産部門을 二大別하여 生産財生産部門과 消費財生産部門으로 區分할수 있다. 그렇다면 資本의 補顔分은 資本財로서 構成되므로 兩部門의 資本補顔을 充當할수 있는 物的形態를 가져야 할것이다. 더욱 些細히 이를 考察하면 前述한 兩生産部門內에서도 各企業의 資本補顔需要의 物的形態는 相異할것이며 따라서 總生産物가운데는 이들 各種多樣한 個々 企業이 資本補顔需要

에 呼應할수 있는 物的形態와 充分한 量이있어야한다.

둘째, 投資한 單純한 貨幣資本 或은 營利資本의 形成 乃至 稼動으로서 投資라고는 할수없을것이며 實物資本의 形成이어야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Keynes 亦是 投資를 資本施設의 增加로 看做하고 이를 完成財 與否는 不問에 부치고 있으며① Moulton이 「直接 生現過程에 利用될수있는 過去生産의 結果」②라고 한것도 이러한 意味에서거니와 再投資와 區別할때 概念은 確實해진다. 故로 投資는 資本形成을 意味하며 實物側面の 財貨와 貨幣側面の 貯蓄이 相互呼應하는 部分일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金融的流通을 꺾은 貯蓄이 投資되기 爲하여는 먼저 實物인 資本財가 存在하므로서 비로소 可能할것이며 그것 亦是 部門別 投資量에 따라 그에 呼應할수있는 財貨의 質과 量에 있어서 何等の 過不足없이 呼應하므로서 投資의 圓滑을 期할수 있을것이다.

셋째, 消費를 본다. 所得③中에서 貯蓄을 差引한 殘部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消費는 社會의 消費性向에 依하여 決定될것이나 이가 消費財의 總供給價格을 超過하는 境遇는 圓滑한 再生産의 循環을 期待할수 없을 것이며 部門別 價格差에 由緣하는 經濟的混亂이 附隨함은 明確하다.

叙上한바와같이 財貨의 質 및 量의 問題를 考慮하여 再生産의循環條件을 圖示하면 第四圖와 같다.

即 第四圖에서 1. 2. 3. 을 各々 生産財 消費財 生産部門의 企業家群 및 其他生産要素를 表示하며 實物側面の 供給價格은 全部1를 附記하며 a. b. c...等は 部門內 個々 企業을 意味한다. 그러면 補顧에 充當될 財貨는 첫째 生産財生産部門의 企業家 및 消費財生産部門들의 需要에 呼應할  $U'_1, U'_2$ 로 이루어 저야할것이며 各々의 量은 價格水準에 變動없이 兩部門의 補顧需要  $U_1 U_2$ 에 一致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兩大生産部門內에 있어서도 無數한 生産分野를 生覺할수있다. 故로 이들 各々에는 相互代替性이 없으므로  $a_1$ 生産分野의 補顧需要  $Ua_1$ 과 補顧供給  $Ua'_1$ 는 一致하여야 할것이며  $d_1 \cdot c_1$  各生産 分野 亦是 同一하다. 따라서 資本減價의 補顧에 各部門充當用 過不足없이 곧 價格變動을 招來하지 않고 營爲되는 條件은 다음式을 充足



이니 말이다. 따라서  $((A_1 - U))$ 의 配分은 生産財部門 消費部門으로 各  $I'_1$ ,  $I'_2$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貨幣側面의  $I_1$ 과  $I_2$ 와 一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細分하면 補頭과 消費에서 본바와같은 部門內的 個々生産分野에 있어서도 同一한 條件이 成立하여야 할 것이므로 結局 다음式이 充足되어야 할 것이다.

$$I = I_1 + I_2 = (A_1 - U) = I'_1 + I'_2 = (Ia_1 + Ib_1 \cdots In_1) + (Ia_2 + Ib_2 + \cdots \cdots In_2) \\ = (Ia'_1 + Ib'_1 + \cdots In_1) + (Ia'_2 + Ib'_2 \cdots In'_2)$$

上記 三個式이 充足되므로서 總生産物A는 過不足없이 全部需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財貨의 投資側面  $(A_1 - U)$ 가 如何한 比率로서  $I'_1$ 와  $I'_2$ 로 配分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는 總財貨의 使用方途에서 考察한다. 即 補頭 및 消費는 各々 派生的인 經濟效果를 招來하지 않으나 投資는 所得의 擴大를 惹起하고 消費增加를 結果한다. 따라서 投資가 이루어지므로서 消費需要의 擴大가 이루어지며 그에 呼應하여 消費財를 供給할 수 있을 정도로  $I'_2$ 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알맞은  $I'_2$ 가 있어야 할 것이다.

以上 封鎖型을 中心하여 瞬間的인 循環圖를 作成하였다. 왜냐하면 勞動의 熟練利用할수있는 設備의 質과量 그리고 現存技術等々은 所與된것으로 推論하였기 때문이며 ④ Harrod가 말하는 ⑤ 靜態的인 것이었다.

- ① J. M. Keynes : General theory P.52. P.75.
- ② H. G. Moulton : The formation of Capital P.9.
- ③ 可處分所得의 總和를 말한다.
- ④ J. M. Keynes : ibid. P.245.
- ⑤ R. F. Harrod : Towards a Dynamic Economics P.11.